나주시 지역청년 자립 역량 키운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모집
18~45세 5인 이상 법인·단체
과업 수행비 최대 700만원 지원

나주시가 지역 청년들의 활동 기반 마련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과 보고회.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역 청년들의 활동 기반 마련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교육, 창업,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과업 수행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18세부터 45세 이하 5인 이상의 청년들로 구성한 법인, 단체 등으로 대표와 구성원의 60% 이상이 나주시에 거주해야 한다.

시는 올해 5개 팀을 선정해 팀당 과업수행비 600만원, 청년 공동체 간 교류·협력 행사비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단체는 시 누리집 공고문에 게시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오는 28일까지 나주시 청년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 평가로 진행한다.

신청요건 충족 여부, 활동 계획, 성과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월 16일 최종 선정 결과를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 단체는 매월 활동 보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활동 우수사례는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역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민이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자립 역량을 키우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만의 픽'…화순 여행 숏폼 영상 공모전

18일~5월 말까지 접수
대상 100만원 등 상금 300만원

화순군이 화순의 매력을 담은 창의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SNS를 통한 효과적인 관광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나만의 픽! 전남 화순 추천 여행코스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 있는 '숏폼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홍보 전략으로 기획됐다. 30초에서 1분 이내의 짧고 감각적인 영상을 통해 화순의 대표 여행지를 매력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화순 여행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화순으로 떠나고 싶어지는 추천 여행 영상'으로 장르에 개의치 않고 화순의 다양한 관광지를 매력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참가자는 제작한 영상을 본인의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한 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1편)은 100만원, 최우수상(2편) 각 50만원, 우수상(3편) 각 20만원, 장려상(8편) 각 5만원(현금 또는 경품)으로 총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조형채 화순군 관광체육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개성 있는 시각으로 화순의 관광 명소를 발굴하고, SNS를 통한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많은 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화순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표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함평군,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

11월까지…1일 최대 4만원 할인

함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5년 함평군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를 진행한다.

2025년 함평군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는 전남도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관광객이 전남관광플랫폼(JN TOUR) 앱에 등록된 함평군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숙박 요금을 차등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할인 혜택은 1박 기준 요금에 따라 ▲10만원 이상 숙박 시 4만원 ▲7만원 이상 3만원 ▲5만원 이상 2만원이 적용되며,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가입 시 1만원이 추가로 할인된다. 이용은 월 1회, 최대 3박(연박)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군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지역 숙박업소와 연계한 관광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관광객의 지역 내 체류 시간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장성군 고려시멘트 폐광산 관광자원 재활용 방안 모색

테마파크 변신 광명시 동굴 답사
역사·문화 가치 결합 공간 재활용

김한종(가운데) 장성군수와 군 관계자들이 장성 건동광산 재활용 방향 모색을 위해 경기도 광명동굴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시멘트 원료 석회석 채취가 중단된 지하 폐광산을 지역의 미래 관광자원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한다.

장성군은 최근 김한종 군수와 군 관계자들이 ㈜고려시멘트 건동광산의 재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테마파크로 변신한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굴을 답사했다.

답사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서일동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김한종 군수 일행을 대상으로 시설을 소개하고 광명동굴의 개발 현황, 운영 방식, 향후 추진 예정 사업 등을 공유했다.

광명시 가학산 근린공원에 위치한 광명동굴은 일제 강점기인 1912년 께 금·은·구리 등을 채굴하기 위해 개발된 광산이다.

하지만 1972년 대홍수 당시 제련 과정에서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인근 농경지를 덮치면서 보상 문제로 폐광됐다.

이후 2010년 들어 광명시가 폐광을 매입해 '동굴 테마파크'를 조성한 결과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될 만큼 유명 관광지로 발전했다.

장성군도 광명동굴을 벤치마킹해 건동광산을 지역적 특징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결합한 새로운 공간으로 재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답사를 마친 김한종 군수는 "이번 광명동굴 답사가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재활용 계획 구상에 큰 도움이 됐다"며 "군민과 전문가, 담당부서 등의 의견을 모아 지역의 미래를 이끄는 소중한 자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군, 고향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담양군이 기부자와 군민 누구에게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참신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담양군의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의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 4개 분야다.

참여 대상과 공모 내용,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오는 5월 9일까지이다.

담양군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올해 ▲거동불편 어르신 병원동행 및 퇴원환자 통합 돌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향촌공동급식센터 운영 ▲청소년 독서 동아리 지원사업 ▲상가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탐진강 물축제장 도로명 '물축제길, 노벨문학길' 변경

장흥군은 7월말 열리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 준비와 노벨문학도시장흥 홍보를 위해 탐진강변 도로명을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장흥군은 기존 '탐진강동·서쪽자전거길'을 '물축제길, 노벨문학길'로 변경했다.

장흥군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군민들을 대상으로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람 공고를 실시했다.

4월 초에는 도로명 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및 주소사용자의 서면동의를 거쳐 도로명 변경을 완료했다.

그간 물축제장은 공중화장실 등 일부 편의시설을 제외하면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가 없어 군민 및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